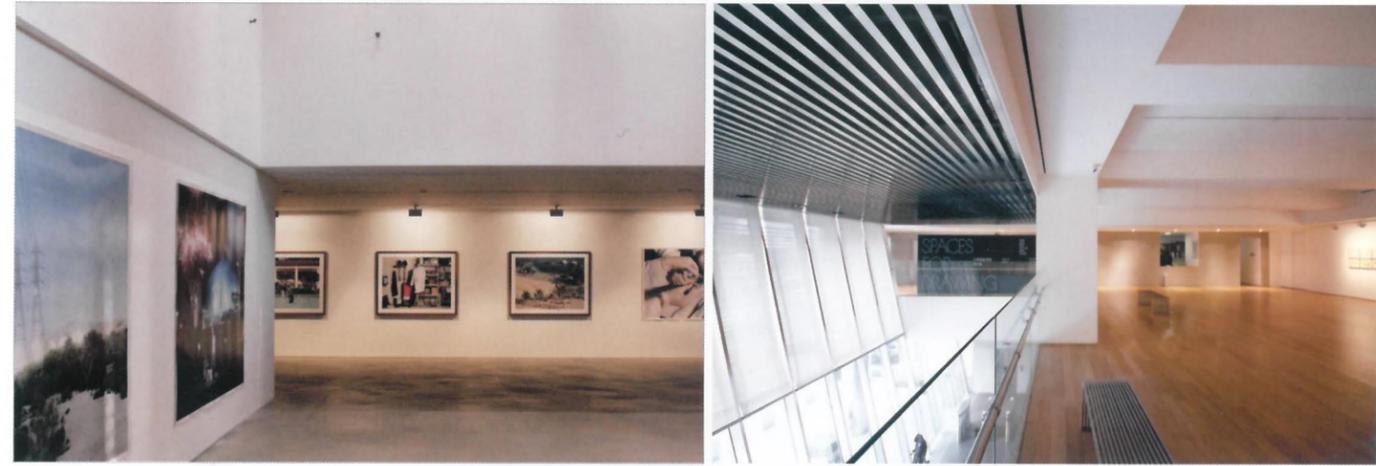




HITE Collection Gallery

해가 지고 영동대교 남단을 지나다보면, 1층에 유난히 빨간색인 조형물이 있는 건물을 볼 수 있다. 서도호의 설치 작품이 영구 전시되어있는 하이트 컬렉션갤러이다. (주)하이트 진로의 본사건물 지하1층과 2층에 자리한 이곳은 2007년 설립된 하이트 문화재단이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컬렉션하여 소장하고 있던 미술작품을 일반에 공개하여 미술 감상의 장을 확대하고 공공과 소통하려는 의미에서 하이트컬렉션



이라 이름 지었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지하1층의 전시장에서 1층 로비를 관통할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서도호 작가의 작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인과(Cause & Effect)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2010년 하이트컬렉션 갤러리의 개관 당시 영구설치를 위해 처음부터 갤러리와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다. 본디 지하1층과 1층, 2층으로 나누어져있었던 건물의 개별적인 층에 관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8m의 높이로 11만개의 소형인물상을 설치했다. 서도호의 작품과 함께 2010년 개관전으로 열렸던 우리나라 근대미술 대표 조각가인 권진규의 작품들은, 하이트 재단이 가장 많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저희 하이트 컬렉션 갤러리는 그동안 연간 1~2회 정도의 전시를 개최해왔어요. 이제부터는 대중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자, 전시를 조금씩 늘려갈 예정으로 올해 2회의 그룹전과 1회의 개인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2월부터 시작된 <드로잉을 위한 공간들>전이 끝나면, 6월말부터는 사진작가 엄중호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 가을부터는 유럽과 일본, 아프리카의 회화작가들의 기획전인 <Four Coners of the World>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이트컬렉션갤러리 이성휘 큐레이터

지금 진행중인 전시인 <드로잉을 위한 공간들>은 정연두, 유현미, 고진영, 남화연, 히라키사와, 마이클왕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전으로서 사진, 드로잉,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드로잉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전시이다. 지하 1층 전시장에는 정연두, 유현미, 고진영 작가의 사진작업과 히라키사와의 영상작업이 전시중이고 차가운 느낌의 지하 1층 전시장과는 달리 창문과 햇빛으로 따스한 분위기의 2층 전시장에서는 남화연작가와 정연두작가의 드로잉, 마이클왕의 설치작업이 있다.

회사 본사 안에 있는 갤러리고 아직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서 발길이 쉬이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편안한 공간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트컬렉션갤러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2번지 02-3219-0271
<http://hitecollection.wordpress.com>

